

부산시, 디지털 경제 전환 순항... 스마트도시 27위 '쾌거'

글로벌 스마트시티지수 5회차 평가 2030년 20위권 진입 목표 '성큼' 1년 만에 총 35계단 수직 상승

부산시가 디지털 중심 경제로의 전환에 성공하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스마트도시로 본격적인 도약을 시작했다.

부산시는 지난 5월 말 발표된 글로벌 스마트시티지수(SCI : Smart Centres Index) 5회차 평가에서 전 세계 주요 도시 76곳 중 디지털 중심 스마트도시 27위에 올랐다.

스마트시티지수는 세계 주요 도시의 디지털 중심 스마트도시 경쟁력 순위로, 글로벌 컨설팅 전문기관인 Z/Yen(런던 소재)이 2020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발표하고 있다. 134개의 스마트 관련 통계지표를 활용한 정량평가와 분야별 전문가의 설문평가를 통해 순위를 결정한다.

작년 6월 발표한 3회차 SCI에 62위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로 처음 이름을 올린 부산시는 작년 하반기 4회차에서는 21계단 상승한 41위, 이번에는 27위로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작년 상반기 이후 불과 1년 만에 총 35계단을 수직으로 상승하는 등 같은 기간 76개 평가도시 중 가장 많이 순위를 끌어올린 도시가 됐다.

부산시는 6대 정량평가 항목 중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경제의 핵심이 되는 블록체인, 인공지능, 핀테크 등 첨단기술 분야 순위가 11위로 상위권인 만큼,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활성화로 향후 전체 순위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글로벌 스마트시티지수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세계 금융 중심지인 뉴욕과 런던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고, 홍콩이 3위, 취리히가 4위로 뒤를 이었다. 아시아 도시들로는 싱가포르 12위, 상하이 20위, 베이징 22위, 도쿄 28위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에서는 서울이 24위로 가장 높고 부산이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부산이 비교적 늦게 평가리스트에 올라갔지만, 가파른 상승세로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이유는 작년 박형준 시장 취임 이후 본격 추진하고 있는 부산 경제체질의 디지털 전환 가속 때문으로 분석된다.

작년 여름 첫 조직개편 때 선제적

으로 '디지털경제혁신실'을 신설하여 부산의 산업 전반에 '스마트'와 '디지털'의 접목을 추진하였고, 수도권 대표 클라우드 기업 '클루커스' 등 다수의 첨단기술 기업 유치 및 지산학 협력을 통한 디지털 핵심 인재 양성 등 다양한 디지털 관련 사업과 미래의 기대감이 직간접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올해 초 종합 컨트롤타워인 '디지털혁신 부산특별위원회'도 출범하였고, 이때 발표한 '부산 디지털경제 혁신전략 2030'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과 이에 따른 사업 성과와 실적들이 더해져 이번에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평가이다.

시는 앞으로 디지털경제 2030의 4대 핵심과제인 ▲혁신자원 고도화 ▲주력산업 디지털 혁신 ▲디지털 신산업 육성 ▲혁신거점 확산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금의 상승세를 꾸준히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부산=장병호 기자 metrobusan1@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여수시 사회적경제기업 11개소 선정

여수시가 전라남도에서 공모한 '2022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고도화 지원사업'에 관내 11개 업체(시설장비 10, 고도화 1)가 최종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11개 사회적경제기업에는 냉난방기, 진공포장기, 테이블기 등 시설장비와 수산물 외박스 등 필요물품 개발, 기업 홍보에 총 1억 4천만 원이 지원된다.

재정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지속 창출하는 기업에게는 시제품 개발,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 홍보 등을 지원하게 된다. /여수(전남)=김용환 기자 jiiacecom@



부산시 '장보고기 전국조정대회' 개최

부산시는 18일부터 26일까지 서낙동강 조정·카누 경기장에서 '제48회 장보고기 전국조정대회'를 개최한다.

부산시와 대한조정협회가 주최하고 부산시조정협회가 주관하는 올해 대회에는 107개 팀 4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싱글스컬, 무타페어, 실내조정 등 총 90개 종목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종목별 1~3위에게 상장과 메달이 수여되며, 종별 종합우승팀에는 우승기와 우승컵도 수여할 예정이다. /부산=장병호 기자

광주 동구 '서울 출발 광역시티투어' 운행

광주 동구는 수도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서울 출발, 광주 동구 광역시티투어' 첫 운행에 나섰다.

'야간관광'을 테마로 한 동구 광역시티투어는 5·18민주광장에서 빛의 예술인 미디어 아트로 빛·불 정신을 섬세하게 구현한 '빛의 분수대' 관람을 포함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전일빌딩245, 광주 폴리, 국악 관람 등 다채로운 체험으로 꾸며져 있다. /광주=김태수 기자

경북농업기술원 '농촌치유카페' 사업 추진

경북농업기술원(이하농기원)이 농촌공간을 활용한 '농촌치유카페' 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치유카페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경북형 치유농업 비즈니스모델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농기원의 역점사업이다.

자연을 품은 농촌경관, 농업활동으로 이뤄지는 치유 프로그램,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치유 음식을 갖추고 운영된다.

또 지난 3일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와 함께 만성질환예방을 위한 건강팝케어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경북=김태우 기자

경북도, 稅 징수활동 강화

“체납자 이사 가도 찾아간다”

시군 합동 체납징수팀 운영 관외지역 거주 체납액 30%

경북도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체납자도 끝까지 찾아내 세금을 징수하기로 했다.

도는 20일부터 24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체납징수팀을 만들어 서울·인천·경기 등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체납자를 찾아 징수활동을 벌인다.

도에 따르면 관외지역에 거주하는 체납자의 체납은 도 전체 체납액의 30%에 이른다.

관외지역 거주 체납자는 현지조사와 직접 독려가 힘든 점을 악용해 납부를 회피하면서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도는 시군 직원 50여명과 총 3개팀으로 편성한 '관외지역 체납세 합동징수팀'을 연 5회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징수대상은 서울·인천·경기에 거주하는 체납자 735명이며, 체납액은 25억원이다.



청송군 지방세 체납 정리단 활동모습.

합동징수팀은 체납자의 거주지와 사업장 방문을 비롯해 연고지 탐문, 체납차량 운행행적 조회 등을 통해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강제견인도 한다.

징수가능 체납자는 면담을 통해 분납안내 및 자진납부 유도하는 등 지속해서 관리하고, 거소불명 및 행방불명된 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말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광주시, 무등산 무돌길 탐방 활성화

4개 구간 15길... 총 길이 51.8km

광주시는 무등산 자락 무돌길 탐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나섰다.

무등산의 옛 이름 '무돌괴'에서 유래된 무돌길은 오랜 세월 무등산 자락 마을과 마을을 잇던 소통과 교류의 길이다.

광주시 북구, 동구와 전남 담양군 남면, 화순군을 지나는 4개 구간 15길로 총길이만 51.8km에 달하며, 소요시간은 20시간 정도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다.

이 가운데 1길 싸리길과 2길 조릿대길은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특화마을인 지오빌리지 청풍마을을 둘러볼 수 있는 코스로, 무등산

자락에서 자란 식재료로 만든 동동주나 두부 등 지오프드(GEOfood)를 맛볼 수 있다.

특히, 4길 원호계곡길은 무등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곡인 원호계곡을 따라 걸을 수 있고 가사문화박물관, 김덕령 생가, 소쇄원, 식영정, 환벽당 등 다양한 가사문화체험 장소를 거치게 돼 무등산 자락의 천년문화와 자연 경관을 함께 체험할 수 있다.

광주시는 무돌길 탐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공모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가 지원 받아 무돌길 해설사 양성·배치와 무돌길 한바퀴걷기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탐방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

경상국립대 지역청년센터 국유재산 사용승인

진주시, 시유지 무상대부 허가

경상국립대학교는 옛 진주법원·검찰청 부지에 있는 지역혁신청년센터(옛 검찰청 청사 리모델링)의 주차장 부지(1517.6㎡)를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에서 6월 10일 최종 사용승인을 받았다.

경상국립대는 2021년 3월 25일 체결한 '경상국립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진주시 간 옛 법원·검찰청 부지 활용 협약'에 따라 올 1월 옛 검찰청 주차장 부지(경상국립대), 옛 법원 부지(한국방송대)에 대해 교육부를 거쳐 기재부에 국유재산 사용승인 신청을 했으며, 이번에 최종 사용승인을 받게 됐다.

지난해 3월 체결한 협약에서 경상국립대는 옛 검찰청 주차장 부지 사용 및

공동 활용, 지역민 대상 교육공간 등을 제공하고 한국방송대는 옛 법원 부지에 경남지역학습관을 이전·신축하고 주차장을 공동 활용하기로 하며 현재의 경남지역학습관은 경상국립대가 사용하기로 했다. 진주시는 부지 내 시유지를 무상대부 허가하기로 했다.

이로써 경상국립대는 지역혁신청년센터의 진입로 및 주차장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이용자·방문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지역혁신청년센터 건물에는 지역 청년 대상 취·창업 지원 및 지역 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협업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진주(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부산시-정부대표단 파리서 엑스포 유치 '온힘'

2030년 세계박람회 경쟁 PT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정부대표단(국무총리 한덕수,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최태원)과 공동으로 파리현지에서 2차 경쟁 PT 발표 및 BIE 회원국 대상 유치교섭 활동을 추진한다.

오는 21일 오후 4시 30분(파리 현지 시간 오전 9시 30분)에 제170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후보국 2차 경쟁 PT가 개최된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된 제169차 총회와 달리, 국제박람회기구 사무국이 있는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대면 회의로 마련된다.

새정부 들어 처음으로 진행되는 경쟁 PT일 뿐만 아니라 대면으로 개최되는 의미 있는 자리인 만큼,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 정부 대표로 한덕수 국무총리도 직접 연사로 참여한다.

/부산=장병호 기자